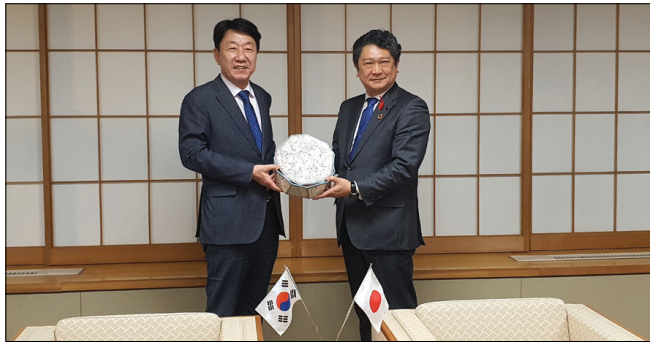


# 자매도시 일본 가나자와시와 국제협력 강화

## 학습취약계층 평생교육 지원

### 우범기 전주시장, 2002년 자매교류 체결 후 20년 교류사 회고·주요명소 방문 글로벌관광도시 혁신전략 구상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오후 일본 가나자와시청을 찾아 무라이야마 다카시 시 가나자와시장을 만나 지난 20년간의 교류사를 되돌아보고, 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면담을 진행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7일 일본 가나자와시를 방문해 무라이야마 다카시 시장과 두 도시의 상징을 담은 선물을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와 가나자와시는 지난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20여 년간 꾸준한 교류를 지속해왔으며,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양 도시 시장의 공식 대면 면담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가나자와의 문화관광 정책이 왕의공원 프로젝트와 글로벌관광도시 프로젝트 등 전주 시민의 혁신전략을 구상하는 데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자매도시로서 양 도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주시 대표단은 8일 전

로쿠엔과 가나자와성 등 가나자와의 주요 명소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왕의공원 프로젝트 중 한국 전통 왕실 정원 등을 구상 중인 만큼 전주만의 전통과 매력을 품은 대한

민국 대표 정원을 조성하는 데 가나자와성 동쪽에 자리한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엔이 좋은 참고 자료 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 시장은 이어 문화재 보수 등 전

문인력과 전통 장인을 양성하는 장인대학교와 미술공예대학, 시민예술촌 등을 찾은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과거 폐 방직공장이었던 곳을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장소로 재생한 시민예술촌에서 팔복예술공장 활성화와 공예 분야 교류, 문화재 양성 및 시민 참여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 대표단은 지난해 7월 개관한 이시카와 현립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 운영 목적과 도서관 정책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왕의 공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가나자와 등 일본의 대표 문화관광도시를 뛰어넘는 혁신전략으로 새로운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저소득층 아동 등 학습취약계층을 찾아가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평생학습관(관장 권인숙)은 오는 22일까지 약 2주간 삼성여성의원터와 해남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여성의원터에서는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총 5회에 걸쳐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평생학습관은 올해 15개 기관, 215명을 대상으로 텃밭과도 감그리기, 나도사진작가, 캘리그래피 등 학습필요계층 프로그램 운영을 운

영해왔다.

이날 삼성여성의원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됐다"면서 "이러한 학습의 기회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권인숙 전주시 평생학습관장은 "이번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이 기존의 학습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사회성이 향상되고, 자기 계발의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7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 새뜰마을사업으로 살기 좋은 도시 전주 만들기 역량 '집중'

### 2년 연속 공모 선정... 올해 낙수정마을 이어 내년도 사업지구 건원왕궁로 일원 선정

전주시가 낙후된 도심 속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올해 교통 낙수정마을 일원이 선정된 데 이어 내년도 사업지구로 전주고 배후에 위치한 남노송동 건원왕궁로 일원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동네 등 취약지역에서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새뜰마을사업의 주요 내용은 △노후 주택 정비(집수리)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해예방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물리적 환경개선 등이다.

시는 사업 첫째 팔복동 추천마을을 시작으로 매년 적극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공모를 신청하는 등 취약지역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주지역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팔복동 추천마을과 교동 송암마을 등 2개 지구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진북동 도토리골과 남노송동 마당재, 동안산동 투구봉마을 등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7개 마을에서 새뜰마을사업이 펼쳐지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팔복추천마을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커피공통체를 구성해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에 나서도록 지원했다. 또, 교동 송암마을의 경우 LPG 배관망을 매설해 도시가스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했으며, 진북동 도토리골에는 배수로를 설치해 매년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전주시가 새뜰마을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전주시의 도시재생 정책 추진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일궈 낸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으로 전주시 어느 동네에 살더라도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전북대 글로벌융합대학, 협약 체결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및 대학생들의 참여민주주의 체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학생들의 민주주의 가치 함양 및 선거과정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고,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은 대학생들이 (사진)투·

개표사무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으로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조기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인력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8일에는 전주대학교 행정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 국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선거사무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학생들이 투·개표사무원 등 참여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주시,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 상담

전주시는 7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라북도는 도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각 시·군별 상담 일자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거나 도청사내 희망법률상담실에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는 올해 전북도와 연계해 2번째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이날 상담에는 전주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1명(한지영 변호사)과 전주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세무사 1명(박종욱 세무사)이 참여해 상담을 신청한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익하고 정확한 법률·세무에 관한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또 전주시민들의 법률·세무 상담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상담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을 원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사항 및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할 경우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063-280-2847, 전북도청 1층 희망법률상담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마을세무사(063-280-232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기부자 → 기부 → 지자체 → 농업인 → 농축산물 공급 → 타제품 구입 → 세액공제/타제품 제공 → 기부

함께하는 100년 농협

###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기부액의 30% 상당 담례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시행: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정부 총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농협은행·농협중앙회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불가)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 | 김제 농업협동조합 | 백산 농업협동조합 | 용지 농업협동조합 | 백구 농업협동조합 | 금만 농업협동조합  
 공덕 농업협동조합 | 진봉 농업협동조합 | 동김제 농업협동조합 | 금산 농업협동조합 | 광활 농업협동조합 | 김제원예농업협동조합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